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8월 뉴스레터 특집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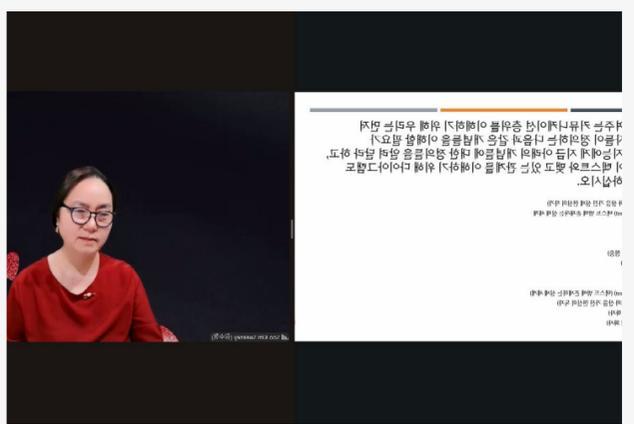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박사과정 2025년 여름 집중 수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2025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한국 시간 기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여름 집중 수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라오스, 필리핀, 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참여한 24명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두 명의 교수진은 온라인 Zoom을 통해 만나, 새로운 원격 학습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소통과 깊이 있는 학문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름 집중 과정은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요청되는 두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첫째 주에는 '다문화 세상에서의 자기 변혁과 교육목회'를 주제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개인적 성장을 모색하고, 교육 사역의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주에는 '구약 성서 속 갈등 해석과 치유, 화해'를 주제로, 성서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치유와 화해의 지혜를 함께 나눴다.



<사진: 오현선 교수님 강의 중>



<사진: 김수정 교수님 강의 중>

이번 과정은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열띤 토론과 발표,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목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적 통찰과 지혜를 공유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상호작용적 학습 방식은 강의의 깊이와 생동감을 한층 더했다. 비록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학교 기술지원팀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모든 원격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사진: 오현선 교수님 수업 중 자기성찰_이광희 학생>



<사진: 김수정 교수님 수업 중 역할극>

수업을 마친 후 촬영된 단체 사진 속 밝은 미소는 이번 여정을 통해 쌓은 신뢰와 열정을 잘 보여준다. 이번 집중 수업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 습득을 넘어, 목회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발걸음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사진: 오현선 교수님 수업 마지막 날>



<사진: 김수정 교수님 수업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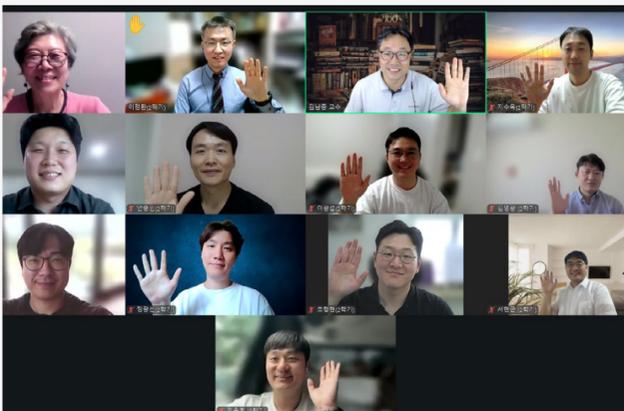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책임자이자 부학장인 김남중 교수는 “이번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교직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의 현장 사역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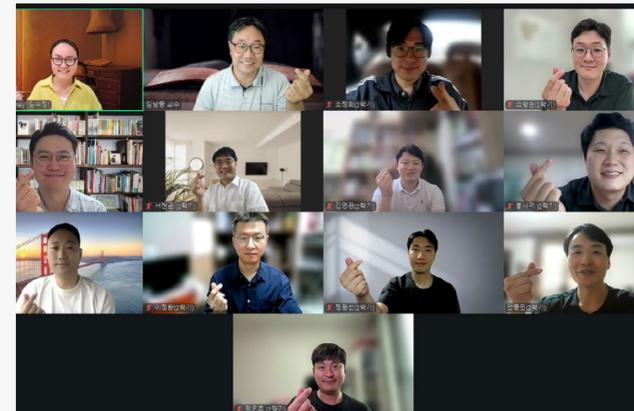
<사진: 1학기생 단체사진>



<사진: 1학기생 단체사진>



<사진: 2학기생 단체사진>



<사진: 2학기생 단체사진>



<사진: 3학기, 4학기생 단체사진>



<사진: 3학기, 4학기생 단체사진>

한편, 이번 여름 집중 수업에 참여한 24명의 학생 가운데 여섯 명의 생생한 수업 후기가 이번 뉴스레터 하단에 이어진다. 각자의 경험과 깊은 통찰이 담긴 이들의 글을 통해, 이번 과정의 실제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움의 여정, 목회의 시야를 넓히다” - 3학기를 마치며



〈사진: 이종찬 목사, 공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인근에서 공감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종찬 목사입니다. 2024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 입학하여 목회학박사(D.Min.) 과정을 시작했고, 어느덧 세 학기의 코스웍을 마쳤습니다. 유학은 오랫동안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던 꿈이었습니다. 현실의 제약으로 늘 미뤄왔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며 미국의 신학을 배울 수 있다는 CST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UMC에서 목회하셨던 아버지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설렘과 기대 속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CST의 핵심 가치인 연민(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 그리고 목회학박사 과정의 주제인 갈등, 치유, 변화(Conflict, Healing, Transformation)는 저의 목회 여정에 깊이 공명했고, 그 가치들은 지금까지의 학문적 여정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통찰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학문에 몰입한다는 것이 처음엔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남중 교수님의 세심한 안내와 각 학기 교수님들의 통찰력 있는 강의,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 목회자들과의 따뜻한 교류 덕분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오현선 교수님의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 김수정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두 수업 모두 낯설지만 신선한 질문을 던지며 제 시야를 한층 넓혀주었습니다. 오 교수님의 수업은 자기 성찰의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던 색안경—성, 인종,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고, 다양한 세계를 더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수업은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게 했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안에 담긴 복합적 의미들을 발견하는 일은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배움은 마치 낯선 나라로의 첫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설렘과 긴장 속에서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새로운 감각과 넓어진 시야, 깊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 나은 설교자이자 목회자로 빚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새로운 여정 앞에 서 있습니다. 부담이 크지만, 이 또한 저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기회라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졸업’이라는 결실을 함께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배움은 시야를 넓히고, 목회를 다시 보게 합니다” - 3학기를 마치며



<사진: 안준호 목사, 임마누엘교회, 서울 송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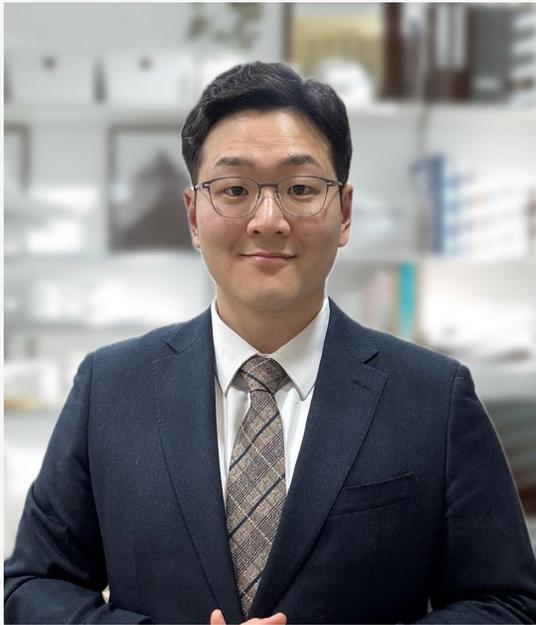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CST)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세 번째 학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동문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는 낯선 신학적 관점들이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안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점을 배워가며 신학적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새 세 학기를 지나며, “좀 더 집중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만큼 배움의 시간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학기는 두 번째 온라인 학기였기에 비교적 익숙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남중 교수님의 세심한 진행과 조율 덕분에 소그룹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비대면임에도 깊이 있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쉬는 시간마다 들려주시던 따뜻한 라디오 방송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목회 방향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현선 교수님의 강의에서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선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들으셨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방식’의 환대가 아닌, ‘그들의 필요’를 들으려는 목회자의 태도—이 방향 전환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수정 교수님의 성서해석 수업에서는 ‘프레스홀드 리딩’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문을 탐색하며 설교와 말씀 사역에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중 진행된 촌극 활동은 원우들의 유쾌한 에너지와 재능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CST의 D.Min. 과정은 이론을 넘어 실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프로젝트 논문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 여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늘 힘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교회 김정국 담임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사진: 조항현 목사, 광희문 교회〉

저는 CST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조항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 현재 서울연회 중구용산지방 광희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 여러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깊고 다양한 신학적 통찰과 사과의 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 여러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 2025년 겨울부터 CST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2학기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이번 2학기를 더욱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은 다소 낯선 경험이었지만, 양질의 강의와 깊이 있는 토론은 낯섬을 넘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오현선 교수님과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 수업을 통해,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목회 환경 속에서 교육 목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조망하고, 개인적인 성찰과 더불어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정 교수님과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수업을 들으며,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최신의 해석학 방법을 배웠고 연습하였습니다. Threshold Reading은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를 설교와 성경 묵상,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동료 목사님과 깊이 있게 나눈 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목회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CST에서 하는 공부가 목회의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이라는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의 주제가 가장 먼저 저 스스로에게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좋은 목사님들과의 교류 속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목회의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CST에서 2학기를 마치며,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배움에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모든 목사님과 교수님들, 여러 부분에서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CST에서 2학기를 마치며...



〈사진: 홍사덕 목사, 소망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겨울학기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지금은 2학기 과정 중에 있는 홍사덕 목사입니다. 함께 수업에 참여한 학우들을 대표하여 소식지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신 김남중 부학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클레어몬트를 사랑하시는 동문, 학우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클레어몬트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고즈넉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소망교회를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목회를 하며 ‘농촌’이라는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과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겨울학기 집중 수업은 CST에서 경험한 저의 첫 학기이자, 그동안 저의 갇혀 있던 생각의 틀을 깨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남중 교수님의 ‘Practical Research Project Methodology’ 수업은 그동안 목회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저의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교수님의 Aging, Ageism 수업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에 연령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동안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25년 7월 여름학기 집중 수업은 Zoom을 통해 원격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뛰어난 강의를 비록 현장에서 대면을 통해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100% 온라인 수업으로 승인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Zoom 수업이었던 만큼, 교수님들의 많은 노고와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오현선 교수님의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 수업은 다중정체성 이론을 통해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자각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고, 관계 문화 이론을 통해 문화의 다름과 존재의 다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수업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Threshold Reading’이라는 9단계의 해석 과정을 통해 성서에서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본문을 새로운 방법의 독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 일정 이후에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뒤풀이와 앞 풀이 모임으로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열정을 쏟아 답변해 주신 교수님들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 녹화를 통해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해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CST에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저의 목회에도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김태형 목사, 천안우리들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천안우리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형 목사입니다. 2025년 여름학기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해 적지 않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담임목회를 막 시작한 시점에서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자문하게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번 학기는 적당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중 수업이 시작되자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학문은 매우 실천적이면서도, 정의와 연민,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목회와 신학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막연히 고민해오던 문제들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불의와 고통에 대해 신학적으로 씨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특히 첫 주 오현선 교수님의 수업은 저에게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제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주의(-ism)’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이 포스트 콜로니얼적인 관점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방식에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이 느껴졌고, 그 자체가 목회적 본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간마다 김남중 교수님께서 조력해주신 지혜로운 가이드와 코멘트는 수업의 이해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는 법을 명확히 배웠습니다. 흔히 한국적 문화 안에서는 이 둘이 혼동되기 쉬운데, 이 구분은 앞으로의 목회적 대화와 설교, 공동체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주 김수정 교수님의 성서해석 수업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성경 본문을 threshold로 읽어내는 9가지 방식은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성경 묵상의 깊이를 더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액팅리더(acting reader)의 관점을 통해 본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은, 제 설교가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성 육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두 주간의 집중 수업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제 신앙과 목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함께한 동료 목사님들과의 교류 또한 너무나 소중한데,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갖고 온 고민들과 성찰들을 나누며 저 자신도 많이 도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귀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길을 먼저 걸어가며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의 수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배움과 실천의 균형 속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목회를 이루어가는 목회자, 그리고 클레어몬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진: 이경석 목사〉

저는 이번 학기부터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한 이경석 목사입니다. 길진 않은 목회 경험 속에서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너무 좁았습니다. 이러한 좁은 시야로부터 한층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될 방법을 고민하던 중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인 목회자 몇 분이 이미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이 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ST에서의 첫 학기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발전과 성숙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수강한 두 과목,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와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는 저에게 목회와 신학,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인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는 다문화 세계 속에서 교육 목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대한 깊이 성찰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주변화된 이웃을 향해 태도를 돌아보며, 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는 구약성경 본문을 ‘Threshold Reading’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목회에 적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의 속에서 우리는 성서 속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긴장과 충돌, 치유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설교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텍스트에 숨어 있는 갈등의 구조와 침묵 된 목소리,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읽어내는 과정이 귀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서 본문이 말하는 신앙적 교훈을 더욱 풍성하게 읽어낼 역량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강의가 값진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목회자들과 함께 신학적 통찰을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중에 이루어지는 토론과 소그룹 활동,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도는 서로의 목회적 관점과 신학적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성숙한 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과정이 기대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CST에서의 첫 학기 여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 지어 봅니다.